

교회소식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교회 모임을 조정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5월까지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주일예배와 금요일예배, 토요일새벽기도회를 제외하고 구역예배와 성경공부 등 다른 모임을 중단합니다.
 - 영어예배는 예정대로 10시에, 대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와 친교는 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 예배 순서와 형식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찬양팀이 인도하는 회중찬양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 바이러스보다 해로운 것이 공포와 비관주의, 혐오와 차별입니다. 그러나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 기관들의 권고에 따라 지침을 정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새롭게 새겨봅니다. 제한된 형식의 예배라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염자와 가족들, 의료진과 담당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참되게 알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교우동정
 - 조현례 집사님께서 심장 박동 이상으로 Northern Westchester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Pacemaker 시술을 잘 받으시고 ICU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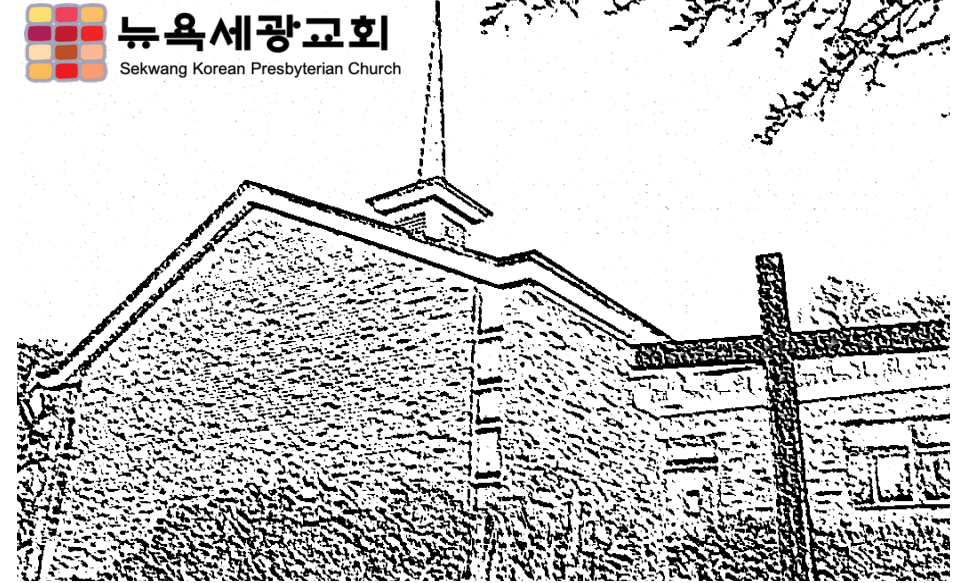
3월 안내: 최은정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이현주 집사 (시 95)
이번 주 친교: 김경화 집사, 임은도 집사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심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중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20권 10호

2020년 3월 8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 예 배 안 내 | | 주 일 학 교 | |
|-----------------|------------------|---------|-------------|
| English Service | 10am / Sanctuary | 유치부 | 12pm / 유치부실 |
| 주일 예배 | 12pm / 본당 | 유년부 | 12pm / 유년부실 |
| 금요 기도회 | 8pm / 본당 | 중·고등부 | 12pm / 소예배실 |
| 토요일 새벽기도 | 6am / 본당 | | |

성경공부 및 모임

| | |
|------------|----------------|
| 출애굽기 성경공부 | 목 8pm / 회의실 |
| 중·고등부 성경공부 | 토 7:30am / 회의실 |
| 새가족 모임 | 금 8pm / 중·고등부실 |
| 구역 모임 |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
| |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10,000 Reasons”----- Together
 * Call to Worship----- Together
 *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1 John 1:5-7; 1 John 2:9-11**----- Pastor Edwin Kim
 Sermon----- **“Walking in The Light”**----- Pastor Edwin Kim
 Intercessory Prayer----- Together
 Closing Praise-----“Rock of My Salvation”----- Together
 * Benediction-----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pening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 경배와 찬양-----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중”----- 다함께
 Hymn **There is no Name so Sweet**
 대표기도----- 시편 121----- 서영수 장로
 Prayer **Psalms 32**
 찬양----- “찬양하라 그 크신 이름 높여”-----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마태복음 1:1-17**----- 인도자
 Word of God **Matthew 1:1-17**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찬송----- 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함께
 Hymn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사야 55:6-13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후(40장) 그 위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하실 계획을 전하셨습니다. 고레스를 종으로 삼아 포로에서 해방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종 고난 받으실 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계획과 약속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는 네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획이 있으시기에 찾고 불러도 헛되지 않습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명령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안 돌아가면 목마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은, 위기 가운데 호소는 실은 그 고난과 위기 자체 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천국이 임하면 그곳은 지옥보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씻어 준비하고 돌아가지 못하니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계획이 있으십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정직하게 예수 보혈의 희생과 능력을 믿고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높은 것은 또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을 위해서라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피는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아래 거하며 받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보람되게 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면 가시나무와 쭉레 대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겠지만, 그 전에라도 높으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에게 돌아가, 그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입고, 그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사람의 심령은, 가시나무와 쭉레 같은 상처와 부정함 것과 연약한 것과 교만이 씻겨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안의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가 이뤄집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와 지혜와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를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갈 때입니다.

<Memo>